

구 분	계	이사장 (대표이사)	사무국장	부 장 (2급)	팀 장 (3급)	대 리 (4급)	사 원 (5급)	기능직
사업지원부	7			1	2	2	2	
연구개발부	7			1	2	2	2	
심사평가부	7			1	2	2	2	
검 사 역	1			1				

복지여성국 주요현안업무보고

1. 여성발전센터 경쟁력 강화방안

우리시 5개 권역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특화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함

[1] 여성발전센터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남 부	중 부	북 부	서 부	동 부
운영형태	시 직영	시 직영	시 직영	민간위탁 (사)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	민간위탁 (재)서울여성
교육인원	5,115명	5,056명	5,610명	4,255명	5,906명
세출예산	2,010,107	1,482,126	1,599,339	1,250,160	1,769,760
세입예산	227,373	245,081	291,274	542,822	894,612

 센터별 운영실적

('03. 6월 기준)

구 分	계	남 부	중 부	북 부	서 부	동 부
① 과정 운영 (과정수, %)	기술교육	240(61%)	35(60%)	64(76%)	47(51%)	39(56%)
	생활문화교육	149(39%)	23(40%)	20(24%)	45(49%)	30(44%)
② 저소득자 교육등록현황(명)	349	75	92	72	51	59
③ 실직여성·장애인 등록현황(명)	실직여성	52	18	10	4	5
	장애인	18	-	5	1	10

구 분	계	남 부	중 부	북 부	서 부	동 부
④ 센터별 재정자립도(%)	14%	9%	15%	17%	15%	15%
⑤ 기술교육생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(명, %)	수료인원	4,742	940	754	1,643	568
	자격증취득	12%	17%	8%	9%	22%
	취업자	11%	14%	20%	8%	6%

※ ②의 저소득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시설수용자, 국가유공자, 모자보호대상자 등을 말함.

※ ④의 재정자립도는 교육수강료 수입/세출현황임.

[2] 추진목표

- 민간위탁 운영 확대를 통한 시정운영의 효율성 증대
 -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, 교육 운영의 전문성 제고, 이용자 욕구에의 신속한 대응 등 대시민 만족도 제고
- 전문직업교육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
 - 직업교육의 확대(수료인원 기준) : 48%('02년)→60%('03년)→70%('04년)
 - 수료생 취업률 제고 : 13%('02)→17%('03)→22%('04)→27%('05)
- 강좌수준 제고 및 교육운영의 내실화 도모
 - 수료후 창업,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과정 개설 및 수료이후의 지속적인 적응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
 - 강사료 현실화 및 고급·전문과정에 대한 수강료·강사료 연동제 확대를 통하여 우수강사를 유치함으로써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
- 수강료 현실화 및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수지 제고
 - 일반시민에 대하여는 비용의 수익자 부담을 통한 센터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
 - 수강료는 강사료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 연차계획을 수립·추진
 - 시설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과 창출 도모

[3] 추진계획

-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운영 확대
 - 대상기관 : 2개(서부·동부) → 5개 전센터로 확대
 - 시 기
 -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조례개정 이후 위탁운영 개시
 - 여성발전센터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남부·북부는 하반기 추진
- 여성의 창업·취업 강화대책 추진
 -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과정의 지속적인 확대 강화
 - 생활문화 대비 직업교육 비중 확대
 - '03 직업교육 확대 : 49%(1기) → 61%(2기) → 63%(3기)
 -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
 - 센터별 지역여건에 따른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
 - 직장인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야간강좌의 확대 보급
 -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강사료 현실화 추진
 - 강사료 인상 시행('03. 5월) : 13,000원 → 25,000원(시간당)
 - 전문과정은 수강료, 강사료 연동제의 확대를 통한 우수강사 확보
 - 교육운영과 취업알선기능의 연계 시스템 구축

- 센터내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취업알선기능 강화
 - 취업·창업지원 시설 운영 강화
 -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창업부스 설치 확대
 - 취업률 향상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취업률 수준 제고
 - 취업률 수준 : 17%('03) → 22%('04) → 27%('05)
- 재정자립도 향상 및 시설운영의 효과성 제고
- 강사료 충족 수준을 목표로 수강료 세입 증대 도모
 - 강좌운영의 활성화 및 적정수준의 수강료 인상 추진
 - 교육 수강료 수입의 강사료 충족률 : 57%(현행) → 80%
 - 시설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 유도
 - 기관별, 개인별 업무성과에 대한 정례적 평가 실시
 - 평가에 따른 우수기관·직원·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센터의 운영활성화 도모
- 정례적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제 시행
- 여성발전센터 운영성과에 대한 정례적 평가 실시
 - 시기 : 연 1회
 - 대상 : 5개 여성발전센터
 - 방법 :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시행
 - 내용 : 2003년 평가시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매년 센터별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·전문성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
 - 여성발전센터 운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
 - 시기 : 2004년부터
 - 기관별,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 차등 부과
 - 우수기관 : 기관표창 및 포상금 지급
 - 우수직원 및 강사 : 성과상여금 지급

2.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대책 추진

국·공립 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이 낮으나 저소득층 보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·시행함

[1] 민간 보육수준 실태

□ 보육시설 현황

구 분	계	민간 보육시설			국·공립 보육시설	직장 보육시설
		소 계	21인 이상	20인 이하 (가정돌이방)		
시 설 수 (%)	4,449 (100)	3,831 (86.1)	2,329 (52.3)	1,502 (33.8)	553 (12.4)	65 (1.5)
이용아동수 (%)	154,072 (100)	104,676 (68)	87,786 (57)	16,890 (11)	46,899 (30.4)	2,497 (1.6)
종사자 수 (%)	20,005 (100)	14,321 (71.6)	11,295 (56.5)	3,026 (15.1)	5,298 (26.5)	386 (1.9)

민간 보육시설의 실태

- 부적절한 보육환경 : 내부시설·안전설비 미흡, 재정형편상 투자에 소극
 - 민간어린이집의 35%가 상가건물내 위치, 이 중 77%가 2층에 위치
- 낮은 보수, 잊은 이직 등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미흡
 - 초임교사 보수가 국공립시설의 65%수준, 이직률 35%(국공립 29%)
-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
- 행·재정적 지원체계 미흡 : 예산지원, 평가시스템 등
 - 높은 보육료, 낮은 서비스 → 정원미달 → 시설운영비부족 → 보육서비스 수준 저하의 악순환 초래

[2]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

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

- '06년까지 저소득층 지역내 민간시설(1,500개소) 서비스 개선비 지원
 - 금년 530개소 지원 : 민간어린이집 8백만원, 가정돌이방 5백만원 이내
-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장기 처리용자 : 시설당 2천만원 이내

교사 처우개선 - 최저임금제 도입

- 국·공립 시설 교사의 65%수준인 임금을 70%(85만원)로 향상
 - 처우수당 인상, 방과후교실 전담교사 수당 신설
- 우수보육교사 선발 특전 부여 및 장기근속 교사 우대방안 마련

보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

- 아동의 연령·특성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·교재 발간 보급
- '06년까지 모든 시설에 컴퓨터, 멀티미디어 등 보육기자재 현대화 지원

행·재정 지원체계 보완·강화

- 국·공립 시설의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민간시설과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해소
 - ※ 국·공립 시설 아동의 62%가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일반아동
- 영아반 지원시설 확대 : 3개반 → 2개반 이상 운영시설
 - 반당 70만원 지원 → 아동수·연령에 따라 차등지원
- 학부모가 참여하는 보육서비스 평가시스템 도입

3. 성매매 종사여성 재활대책 추진사항

성매매 밀집지역 종사여성을 위한 재활대책(다시함께프로젝트)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법률 및 의료·심리치료 지원단 운영,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대책추진에 따른 성과

- 성매매 종사여성 상담자수 전년대비 115%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28% 증가
 - 성매매 종사여성 탈성매매 의지제고 기여

현장활동가(68명) 및 상담전문가(30명) 양성교육

- 여성발전기금사업과 인력개발센터 특화사업으로 추진
-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(한소리회), 자립지지공동체 등
- 민간전문단체와 연계 시행
 - ※ 현장활동가 1차 교육생 수료 48명(8.23)
- 현장활동가는 재활지원센터 개관과 함께 활동시작, 상담전문가는 각 상담기관에서 상담 인력으로 활용

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대책마련 심포지엄 개최

- 일 시 : 2003. 7. 8(화) 14:00~17:00(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)
- 참가대상 : 230여명(관련 공무원, 경찰, 민간단체, 학계, 일반시민)
 - ※ 부대행사 : 「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」 100만인 서명운동 및 캠페인 전개
→ 민간단체 및 지방 참가자들의 '서울시 재활대책'에 대한 관심표명
- 법률 및 의료·심리치료 지원단 결성식 개최
 - 일시·장소 : 2003. 9. 1(월) 14:00, 태평홀
 - 참석 인원 : 지원단 55명
 - ※ 총 지원인원 : 90명(남 52명, 여 38명)
 - 법률 지원단 45명, 의료·심리치료 지원단 45명
 - 행사 내용 : 위촉장 수여 및 지원단 운영방안 협의
 - 향후 운영방안
 - 지원단별 운영위원회(5명 내외)를 구성 "다시 함께"센터, 쉼터 등 탈성매매 여성재활을 위한 법률, 의료서비스 체계적 지원
 - ※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지원단 워크숍 개최 : 8. 21 ~ 22
- 재활시설 설치·운영
 - ① 재활지원센터("다시 함께"센터) 개관
 - 설치장소 : 서울여성플라자(4층)
 - 개소일시 : 2003. 9. 1(월) 16:00
 - 운영단체 :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
 - 규모 및 시설 : 30여평
 - 운영시설 : 면접 및 상담실, 회의 및 사무공간, 긴급보호시설, 소규모 교육실 등
 - 상근인력 : 7명 (상근직원 : 대표1, 2팀 3명씩), 기타 자원활동가 등
 - ② 현장활동 지소
 - 설치장소 : 성북구지역 → 월곡동 88-505 (밀집지역인근 7.25 계약체결)
강동구지역 → 천호동 423-244(쏘냐의 집 8. 19개소)
 - 운영일시 : 지원센터개원과 동시에 운영
 - 운영방법 : 재활지원센터에서 총괄(자치구, 경찰서 협조)
 - 규모 및 설비 : 10여평
 - 운영시설 : 사무공간, 간이상담, 위기개입 등 현장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
 - 활동인력 : 3명 내외 (현장활동가, 자원봉사자, 자치구, 경찰서 관계자 등)
 - ③ 쉼터(보호시설) 운영
 - 장소 : 재활지원센터 인근지역(영등포구)
 - 개관 : 2003. 9월 중순
 - 운영단체 : 은성원
 - 규모 및 시설
 - 규모 : 30평 '내외(정원 10명)
 - 운영시설 : 비밀리에 여성을 보호하여 숙식·주거공간 등 제공 법률, 의료서비스, 심신 안정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
- 「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」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
 - ① Opening행사(길거리 선포식)
 - 일시 : '03. 9. 19(금) 14:00~15:00
 - 장소 : 26개소 서울시 전지역(자치구별 1개소)
 - 매장소 : 시민집결지역(추후결정)
 - 주관 : 한소리회

122 (第144回-保健社會第2次)

- 후 원 : 서울시, 언론기관 등
- 참석 : 200명 내외
 - 서 울 시 : 시장, 복지여성국장 등
 - 초청인사 : 각계 각층의 상정적 저명인사 등 (시의원, 사회인사, 여성시민 단체)
- ② 온라인 서명운동
 - 추진기간 : '03. 9월 ~ 12월(4개월간)
 - 참여대상 : 각 대학, 한소리회 소속단체, 종교단체 등
 - 추진방법 : 거리 선포식과 동시에 온라인 서명운동 프로그램을 개통

4. 장애인 욕구조사 실시

- '89년도 法시행 당시 5종이던 장애유형이 금년 7월부터는 15종으로 확대되고, 보다 다양해지는 장애유형별 욕구를 파악하여,
-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지표를 설정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, 장애인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·보급하고자 함

장애인등록 현황(15개 유형, 6개 등급)

(2003. 6월 현재)

계	지 체	시 각	청각·언어	정신지체	뇌병변	발달장애	정신장애	신 장	심 장
224,987 (100%)	124,886 (55.5%)	24,620 (10.9%)	21,877 (9.7%)	17,049 (7.6%)	18,587 (8.3%)	1,175 (0.5%)	7,016 (3.1%)	7,859 (3.5%)	1,918 (0.9%)

※ 2003. 7월 추가지정(5종, 21천명 예상) : 호흡기, 안면장애, 장루·요루, 간, 간질

욕구조사 필요성

- 법정 장애유형 확대 및 등록장애인 증가
 - 장애유형이 5종('89년) ⇒ 10종(2000.1월) ⇒ 15종(2003. 7월)으로 확대
 - 등록장애인도 9만명('97. 8월) ⇒ 22만명(2003. 6월) ⇒ 24만여명(예상)
- 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
 - 「서울시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('97. 8월)」 외에 체계적인 조사자료 부족
 - 장애유형 확대와 수요변화에 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급계획 등 정책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
- 이용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필요
 - 장애유형별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장애유형별 실태 및 욕구파악
 - 복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효율적인 공급계획 수립

「욕구조사」 학술용역

- 용역기간 : 2004. 2월 ~ 11월 (10개월간)
- 소요 예산 : 150백만원(2004년 예산반영 요구중)
- 수행방법 : 표본조사, 공청회 및 워크숍, 외국 사례 등 검토 반영
 - 모든 장애유형, 성별·연령별 구성,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장애인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 및 조사

- 전문가·실무자 및 장애인의 의견 반영을 위해 「장애인유형별 간담회」 개최
- 욕구조사 결과 및 정책지표에 대한 「시민공청회」「전문가워크숍」 개최

주요 조사내용

- 장애인 욕구조사 :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(15종 장애유형)
 - 2000표본 이상, 1:1 면접조사(장애특성 및 욕구, 시설의 유형별 수요 등)
-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
 - 복지시설·서비스 이용자 및 운영자 조사, 전문가 의견조사 등
- 장애인복지 지표마련 →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방향·우선순위 설정
-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수급계획 → 중·장기계획 수립
 - 복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파악, 유형별 공급기준 등 마련
- 서비스 진달체계 개선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등 체제정비 연구

연구결과 활용

- 시정여건에 부합하고, 현실성 있는 장애유형별 복지정책마련
- 복지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급
- 연차별 복지지표 설정 및 장애인복지 중·장기 실천계획 수립 등

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번호	286
------	-----

1. 제안경위

- (가칭) 서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2003. 8. 14. 서울특별시장이 우리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2003. 8. 18. 회부됨

2. 제정이유

- 확장일로에 있는 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설별·개별적 지원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
- (가칭)서울복지재단의 조직구성 및 사업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관·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3. 검토의견

- 제정조례안에 규정된 개별조문 관련
 - 서울시에서 설립·운영하고 있는 다른 재단법인 관련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(가칭)서울복지재단 설립추진 관련
 - 서울시의 (가칭)서울복지재단 추진 구상 및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음

복지재단설립 추진관련 검토보고

1. (가칭)서울복지재단 추진 구상

(1) 서울시 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인식

- 복지시설 관리체계 분산 및 투명성 미흡
 - 수혜대상별·시설유형별 유사업무를 각 과장이 분담 처리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의 확보가 어렵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